



#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그리스도 왕 대축일(연중 제34주일)  
 제27권 52호 (다해) 2007.11.25

## [묵상]



### 뜨거운 눈물

슬픔과 고통으로 타오르는 불꽃

톡하고 꺼져 버리고

마침내 탁 트여 빛의 몸으로 오시는

사람의 왕이여 기억하소서

당신 앞에 참회하는 뜨거운 눈물입니다

◆ 한광구 요셉 · 시인 / 최창원 니콜라오 · 화가

##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962-8414  
 연명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목요일	평일 미사	오후 7:30
금요일	평일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주일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 주간 행사동

화요일	신양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예비자 교리반	오후 2:00 오전 10:30 오후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9:30 저녁 미사후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M. E. Sharing(3째주) 울뜨레아 (4째주) 거룩한 독서(Lectio Divina)	오전 9:30 오후 7:00 오후 8:00 오후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2째주 토요일)	오후 6:00 오후 5:00 오후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말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9:00 오후 1:0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 고해성사: 평일미사, 토요일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미사	(연) 박한서 아오스딩과 김금란 수산나 구테레사의 시모 조씨
	(생) 최석원 안드레아와 태훈 아오스딩 김현실 아네스 가정
주 일 낮 미사	(연) 이현호 요한, 이영자 마리아, 이규형 곤잘레스 이은완 야고보, 전연옥 마리아, 정계복 마리아, 이문승 김시형 시릴로, 배일호 헨리, 최벨라렛다의 친척들 강요왕, 손태익 베드로, 정요임 안나, 최병기 요셉 정선결 모니카, 김기권 안드레아, 신영순 로사, 김마리아
	(생) 이종민 요셉, 남앤드류, 채승희 에스더 가정 오창애 안나, 김효임 콜롬바와 김효준 아오스딩 강지은 안젤라, 김형순 다니엘, 엄영숙 마리아 가정 이재숙 테레사와 이세준 대건안드레아 박진숙 엘리사벳, 석순영, 구마리아네 수녀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무엘기 하권(2 Samuel)	5,1-3
	◎주님의 집에 가자할 제 나는 몹시 기뻐노라. <전례성가 94, 그리스도 왕 대축일 다해>	
화답송	◎주님의 집에 가자할 제 나는 몹시 기뻐노라. 예루살렘아 네 성문에 우리 발은 이미 서 있노라.◎  ○지파들이, 주님의 지파들이 저기 올라가도다. 이스라엘 법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러. 저기에는 재판하는 자리가 있고 다윗 가문 옥좌가 놓여 있도다.◎	
제 2독서	콜로새서(Colossians)	1,12-20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복 음	루카(Luke)	23,35-43
영성체송	주님께서 영원하신 임금님으로 좌정하셨도다. 주님께서는 당신 백성에게 평화로 강복하시리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99	124
봉헌	291	232,230
성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106,298
파견	351	238

7.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계속)

예수님께서서는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취급하여 구원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켰던 소경이나 나병 환자, 세리와 사마리아 사람 등을 가까이 부르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함께 대화를 나누시고 식사를 하셨다. 이것은 아무도 소외되지 않는 하느님 나라의 평화로운 모습을 실제로 보여 주신 것이다.

예수님의 복음선포는 사람들의 마음 자체뿐 아니라 이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과 비뚤어진 질서를 바로잡는 실천적 행동을 요구한다. 자기의 이익을 우선으로 여기고 눈앞의 성공을 먼저 생각하는 세상에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삶은 결코 쉽지 않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문은 '좁은 문' (마태 7,13-14)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하느님 나라의 참 행복을 깨달은 사람은 이 세상이 약속하는 모든 것을 포기할지라도 하느님의 초대에 기꺼이 응답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마태 13,44)고 가르치셨다.

▶사랑의 새 계명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 계명은 구약성서의 율법을 폐기하고 새로 만든 법이 아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느님께서 내려 주신 율법은 인간이 반드시 지켜야 할 도리이지만,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그 근본정신, 곧 사랑의 정신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마라'는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살인의 원인인 미움과 원한까지도 품어서는 안 되며, 보복의 악순환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가르침이다. 예나 지금이나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는다."는 동태복수법(同態復讐法)에 익숙한 인간들에게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실천하기에 불가능하게 보일 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서간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증명해 보였다. 실로 이 계명을 실천한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율법과 예언서의 근본정신을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는 것" (마태 7,12)으로 요약하셨으며,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신명 6,5)는 첫째 계명과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레위 19,18)는 둘째 계명을 하나로 묶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셨다. (마태 22,37-40)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나라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심판의 잣대는 바로 '사랑의 실천'임을 천명하셨다. (마태 25장)

◆(계속 - CBCK 제공)



### 진정한 왕직은 봉사직

몇년 전 본당에서 가정방문을 할 때였다. 그 가정에는 할머니 한 분이 홀로 살고 계셨다. 그 할머니께서 동행한 구역장 자매를 가르치며 말씀하셨다. “신부님! 저는 밤중에라도 갑자기 몸이 아프면 우리 구역장님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언제든지 저에게 달려와 기꺼이 도와 준답니다. 그리고 아프지 않아도 일주일 몇 번씩 잠깐이라도 들려서 이 노인네랑 말벗이 되어 주니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할머니에게 우리 구역장님은 하느님이 보내 주신 수호천사네요” 라고 했더니 할머니는 “맞아요, 맞아요. 천사예요”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셨다. 그 때부터 내가 그 구역장을 보면 “천사 구역장” 이라고 별명을 붙여 불렀다. 그러면 그 구역장은 손사래를 치면서 수줍어하시던 기억이 난다.

오늘은 그리스도 왕 대축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모시며 그리스도 왕의 명령을 따라 살겠다는 결의를 재다짐하는 날이다. 요즘 세상에 무슨 왕인가 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그런데 왕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일반적인 왕의 개념과는 한참 다르다.

특히 고통과 조롱 속에서 죽어 간 그분의 모습은 왕이란 단어가 무색하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을 모욕하는 이들을 위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루카 23,34)라고 기도하신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에

대한 하느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 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늘 세상의 통치자들처럼 백성을 강제로 지배해서는 안 되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 왕권의 모습이다. 또한 우리 모두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원리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의 왕직이란 바로 봉사직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왕, 진정한 지도자는 모두 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봉사한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남을 섬기고 남의 종이 되어 주기는 실제로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봉사하면서 교만과 허세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겸손이야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길이다. 세상을 통치하고 사회를 다스리는 힘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과 가정을 평화의 낙원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그 해답을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몸소 알려 주셨다.

“주님, 우리도 주님을 따라 겸손하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저희를 기억해 주십시오.”

●허영엽 마리아 신부 · 서울대교구 문화홍보국장

### 이번주 전례 봉사자

### 다음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다음 주	토요 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강정현 시몬	최진수 에우세비오	엄영숙 마리아	해설자	강정현 시몬	신덕례 테레사	최숙 클라라
제1독서자	이성연 크리스티나	유철희 바로로	서병교 라파엘	제1독서자	최태훈 아오스딩	최영신 프란치스코	이영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빅지혜 수산나	황지영 안젤라	서혜경 세라피나	제2독서자	이화영 잔다르크	서용숙 에스델	권순길 세실리아
제물봉헌자			카슨/하버 1,3반	제물봉헌자			토린스 서 2,3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 가정성화와 레지오 재창단을 위한 묵주기도 봉헌
  - 봉헌하신 묵주기도는 게시판에 기록해 주십시오.
- ☞ 지난 주간 합계: 2,825단    ☞ 총 합계: 222,349단

**그리스도 왕 대축일과 대림 시기**

발걸음이 바빠지는 이 계절. 오늘 우리는 교회 캘린더로 한 해가 끝나는 그리스도 왕 대축일을 맞았습니다. 다음 주간부터는 대림시기가 시작됩니다. 올 한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신앙인으로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쯤 돌아봅시다.

- ◆ 병자 영성체 : 12월 6일(목) 오전 9시30분부터
- ◆ 성시간 : 12월 6일(목) 저녁미사와 함께 진행 : 토런스 서구역
- ◆ 성모 신심 미사 : 12월 8일(토) 오전 8시30분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 부산교구 제 4대 교구장 임명**

11월 20일 베네딕도 16세 교황 성하께서는 현재 공석 중인 천주교 부산교구 제 4대 교구장에 황철수 바오로 보좌주교님을 임명하셨습니다. 축하드리며, 주교님과 교구발전을 위하여 기도도 함께 합니다. 우리 백삼위 본당 신부님은 부산교구 소속입니다.

**◆ 레지오 마리아 주회를 시작했습니다.**

- 순교자의 모후 Pr. : 수요일 오후 8시(자매)
- 바다의 별 Pr. : 수요일 오후 8시(형제)

**◆ 대림환 만들기에 초대합니다.**

- 대림절을 맞이하여 가정에 장식할 대림환 만들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때, 곳 : 11월 28일(수) 오전 10시, 강당
  - 준비물 : 가위, 재료비 \$17
  - 신청 : 전례부장 최성자 카타리나 ☎ 548-4645

**◆ 전 신자 대상 “은혜의 밤”**

2007년 전례주년을 마감하며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다가올 새 전례주년을 앞두고 필요한 은총을 청하는 “은혜의 밤”에 전 신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때, 곳 : 11월29일(목)~30일(금), 성전
  - 찬미: 오후 7시 · 미사: 오후 7시30분
  - 특강: 오후 8시~9시30분
- 지도: 오수영 히지노 신부(오순절 평화의 마을 창설자)

**◆ 구역장/반장 회의 겸 송년모임**

12월 첫주일 구역장/반장 회의가 4일(화)로 변경됐습니다. 송년모임을 겸합니다.

- 때 : 12월4일(화) 오후 7시
- 곳 : 권순길 세실리아 소공동체 부장택 ☎ 365-2183

**◆ 목요 교리반 받아들이는 예식**

- 목요 교리반 예비자들의 세례성사(12월23일)를 앞두고 받아들이는 예식이 12월6일(목) 오후 7시30분 저녁미사와 함께 있습니다.

**◆ 대림 특강 및 대전회 가족 1일 피정**

- 때, 곳 : 12월 9일(주일) 오후 1시 성전, 대림특강과 함께
- 강사: 박정배 신부(샌프란시스코 성 마일클성당 주임신부)
  - ※문의: 현석주 아오스딩 ☎ 310-594-9472

**◆ 백삼위 바둑/장기 동호회 결성**

- 주관: 요셉회(회장 김종환 야고보)
- 회원자격: 백삼위 전신자(남녀노소 불문)
- 모임장소: 매주일 11시 미사 후 친교장. 오후 4시까지
- 동호회 임원: 회장 이병권 파비아노, 부회장 김형순 다니엘(장기교수), 성낙호 요셉(바둑6단), 총무 차인수 안드레아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11월 25일 : 토런스 북 3반 (곰 탕 \$3)
- 12월 2일 : 사회복지 분과 (비프&치킨 데리야끼 \$3)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b>교무금</b>	구자운	권태만	김광자	김병철	김정희	김찬구	<b>성전헌금</b>	구자운	권태만	김광자	김정희	김찬구	박수익
	박수익	박주현	박진수	오명섭	오진	우영희		우영희	육근주	이기성	이병찬	이석호	이용식
	육근주	이기성	이병찬	이석호	이용식	이용무		이용무	이인석	이재정	이효세	임현기	정기은
	이인석	이재정	이효세	임현기	정기은	정인식		천광락	최상만	최원석	최진수	한금순	홍숙자
	천광락	최상만	최원석	최진수	한금순	홍숙자		황지영	익명				
	황지영	익명											
<b>합계 : \$3,440</b>						<b>합계 : \$2,830</b>							
<b>미사헌금 : \$2,818</b>						<b>감사헌금 : 김풍길, 박미경</b>							



⊗ 감사합니다 ⊗

백삼위 후보 광고비 납부에 협조해주신 광고주  
교우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Homeless People 돕기 3차 행사 준비 중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여러 형제자매님들의 수고로 홈리스  
피플 돕기 2차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 12월 9일(둘째주일) 3차행사를 앞두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세요.

☎ 310-283-5879 박홍룡 요셉(사회복지분과위원장)

◆ 중고 휴대폰 수집

대건회가 환경보호 및 주일학교 기금마련을 위해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둔 중고 휴대폰을 모읍니다.

☎408-3175(천광락 야고보) ☎213-435-1600(김우용 시몬)

◆ 미주가톨릭 다이제스트 재 구독신청

- 지난 11월 첫 주에 미주 가톨릭 다이제스트를 구독 신청한  
분들은 사무실에 오셔서 다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당 파킹랏 토런스 메모리얼 메디컬 센터에 일시 대여

커뮤니티 유대관계의 일환으로 12월 5일까지(월~금, 오전 6  
시부터 오후 6시) 주중에 본당 주차장을 토런스 메모리얼 메  
디컬 센터에 일시 대여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성당출입에는  
불편을 끼치지 않을 것입니다.

남가주 소식

◆ 가톨릭방송 주관 풍선아트 무료 강좌

- 11월29일: 기초강좌와 크리스마스 주제
- 12월27일: 기초강좌와 뉴이어(새해) 주제
- 장소: 성 아그네스 성당 한인회관
- 신청: 미주 가톨릭방송 ☎213-385-5564

◆ 성모기사회 하루피정 '용서와 화해'

- 일시: 12월1일(토) 오전 10시~오후4시
- 장소: 성프란치스코 성당(2040 W. Artesia Bl. Torrance)
- 강사: 전달수 안토니오 신부
- 문의: 폰벤투알 성 프란치스코회 이영신 수사 ☎380-4647

◆ 꽃동네 제2차 구약 성경 통독 피정

- 일시: 12월 2일(주일) 오후 2시~ 9일 오후 1시(7박8일)
- 대상: 일반 신자들, 참가비: \$300
- 준비물: 성경, 성가책, 침낭, 세면도구, 두꺼운옷, 편한 신
- 신청: 테메칼라 꽃동네 피정의 집 ☎ 951-302-3400

이번 주 단체 모임

사목상임위원회	오후 1시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반장 회의	12월4일(화) 오후 7시
-----------	----------------

노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차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장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김양금 안나 518-3041	김명자 데레사 328-0847 11/9(금), 오후 7시
	2	신중철 아브라함 310-619-4343	박선화 안나 325-3888 11/10(토) 오후 7시, 성당
	3	한길선레 스프라스티카 782-1025	한길선레 스프라스티카 782-1025 11/16(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임혜은 도로테아 200-0512	임종택 베르나르도 542-5517 11/3(토) 오후 7시
	2	이명순크리스티나 374-1572	이명순 크리스티나 374-1572 11/2(금) 오후 7시, 마포주물터
	3	김미성 미리얌 798-6540	조은아 율리아나 533-0208 11/13(화) 오전 11시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신성주 엘리사벳 891-1837	박명자 마가렛 326-5867 11/16(금) 오후 7시30분
	2	임진희 한나 720-7898	김영미 파센시아 892-9651 11/20(화) 오전 10시 30분
	3	임형미 사비나 213-258-7797	이현창 야고보 214-2290 11/9(금) 오후 7시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715-2609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1/9(금) 오후 7시, 성당
	3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현영화 베로니카 530-2136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최경애 프란치스카 326-6587
	2	김희복 아네스 326-2283	이병우 마리노 891-3315 11/10(토) 오후 7시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1794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1	홍정란 클라라 544-6290	오영섭 스테파노 891-3688 12/1(토) 오후 7시30분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김관기 라파엘 541-3687 11/9(금) 오후 7시30분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박옥진 세실리아 377-0436 11/9(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11/14(수) 오전 10시30분



## 한 사람의 강도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알아보다

오늘 '그리스도왕 대축일'을 정확히 말하면 '우주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축일' (Domini Nostri Jesu Christi, Regis Universorum Solemnitas)이다. 오늘 축일은 1925년 교황 비오 11세가 회칙 '과스 프리마스' (Quas primas)를 통하여 제정하였다. 1925년은 325년 가톨릭교회의 첫 공의회로서 '니체아 신경'을 선포한 니체아공의회 개최 1,600주년의 해였다. 교황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무참하게 파괴된 참담한 세계상을 니체아신경을 바탕으로 다시 세우고자 했다. 교황은 우주와 세상의 참된 자유와 평화, 그리고 안정된 질서란 오직 그리스도를 왕 중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절대적인 통치권 아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선포하려했던 것이다. 물론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통치권을 현세적으로만 생각하자는 것은 아니다. 우주만물의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길의 궁극적인 목적이며,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중개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다.

오늘 복음은 예수께서 대략 서기 30년 4월 7일 금요일 오후 예루살렘 북쪽 성벽 밖에 자리 잡은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되었을 때를 보도하는 대목이다. 만나체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예수, 온 몸은 채찍질과 상처와 피투성이고, 가시관을 쓰다 못해 머릿속에 박고 있는 몰골하며, 신의 모습도 인간의 모습도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 참담한 광경이다. 백성의 지도자들인 대제관들과 바리사이 율사들을 물론 형을 집행하는 로마 군인들에다 같이 달려있는 강도까지 십자가의 예수를 향하여 맘껏 조롱과 희롱과 모욕을 퍼붓고 있다. '이자는 유대인들의 임금이다.' 라는 죄목이 적힌 명패도 한 몫 거들고 있다. 하필이면 왜 이 대목을 오늘 '그리스도 왕 대축일'의 복음으로 택한 것인가? 오늘 대축일의 의미에 잘 부합하는 자료가 얼마든지 있는데 말이다. 단 한 마디의 말씀으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신 기적사화를 놔두고라도, 풍량을 꾸짖어 잠재운 기막힌 기적도 있고 오천 명을 먹이신 빵의 기적도 있는데, 왜 예수 생애의 가장 비참한 이 대목을 복음으로 들어야 하는 것일까? 그 이유를 오늘 복음에서 찾아보자.

루카는 원전이 될 마르코복음(15,22-32)을 참조하면서, 마르코가 아주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 양편의 두 강도에 관한 이야기를 크게 확대하여 편집하였다. 이 대목이 바로 문제를 푸는 열쇠이다. 루카는 두 강도를 갈라, 하나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모욕하는 편에 세웠으며, 다른 하나는 그 동료강도의 무례함을 꾸짖고 하느님을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참회자로 세웠다. 바로 그가 "예수님, 선생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는 것이다. 참회자의 간청은 헛되지 않았다. 그것이 마지막 순간이었다 할지라도 죄인이 뉘우치기만 하면 하느님의 용서와 자비를 받는다는 것은 루카복음의 한결같은 주제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하고 뉘우치며 간청하는 강도에게 용서와 자비를, 그리고 구원을 한꺼번에 베풀었다.

갖은 모욕과 조롱이 난무하는 가운데, 단지 이 강도 한 사람만은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였다. 이 강도 한 사람만이 '사형을 당하여 죽어가는 왕',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이다. 바로 이 대목이 오늘 죽어가는 예수님을 생명의 임금이요 왕으로 고백하는 이유로 충분한 대목이 아닌가?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직 이 죄인인 강도만이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오늘이 가기 전에 그리스도의 왕국에 든다면 예수님은 진정 그 나라의 왕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진리와 사랑의 왕, 정의와 평화의 왕, 봉사와 희생의 왕, 섬김과 겸손의 왕, 용서와 자비의 왕, 금관대신 가시관을 쓰신 왕이다. 자신을 낮출 대로 낮추어 신하를 오히려 섬기는 왕인 것이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는 저 강도를 낙원으로 초대하는 왕이시라면, 나에게도 진정한 왕이시다. 나 또한 저 강도와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나 또한 전례력의 마지막 주간에 즈음하여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를 만나고 그분께 용서와 자비를 빌 수 있다면 말이다.

◆ 박상대 신부